

단축형 인지면담이 노인목격자의 회상에 미치는 효과 *

김시엽† 문옥영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시 인지면담을 통해 면담을 받을 경우 표준면담을 받은 노인보다 더 많은 정확정보를 보고하여 수사면담시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독립변인은 면담방법으로, 실험집단인 노인집단과 비교집단인 성인집단은 각각 단축형 인지면담과 표준면담을 받는 2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종속변인은 실험참여자가 보고한 정확정보의 양과 오류정보의 양, 그리고 총정보(정확정보+오류정보)의 양이다. 이를 위해 실험참여자들은 동일한 비디오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 간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처치를 받고 단축형 인지기능검사인 K-MMSE를 시행하고 난 뒤 각 집단별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인지면담 집단이 노인-표준면담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하였고, 오류정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집단은 성인집단에 비해 더 적은 정확정보와 오류정보, 그리고 총정보를 보고하였다. 수사실무에서의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노인, 단축형 인지면담, 표준면담

현재 한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 10년 간 무려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전체 범죄의 증가율을 추월하여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장준오, 2009).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검찰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 양상은 2002년에 22,102건에서 2006년에 46,340건, 그리고 2008년에 70,194건으로, 약 6년 사이에 3.17배 증가하였다. 살인, 강간 등 흉악 강력범죄 역시 2002년에 324건, 2006년에 504건, 그리고 2008년에 1,026건으로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폭력과 관련된 강력범죄는 3,237건에서 15,868건으로 같

은 기간 약 4.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61세 이상의 여성 노인 성범죄 피해자의 증가가 6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12세 이하 여아 성폭행 피해자의 수 증가율 1.67배보다 1.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3년 61살 이상의 여성 노인 성폭행 피해자는 96명이었으나 지난 2006년에는 21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305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여아 성폭행 피해자는 581명에서 889명, 972명으로 증가했다(대검찰청, 2002; 2006; 2008). 이러한 사건은 그 사건의 흉악성

* 이 논문은 2010년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o. 2010-B00156).

† 교신저자: 김시엽,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4, E-mail: mind@kyonggi.ac.kr

때문에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집행유예기간에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20세 청년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년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처녀와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지난 7월에도 어린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이를 막는 할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인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으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상 신고 되지 않은 노인 여성 성폭행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범죄율이 높거나 복지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인 소외지역에 살게 되는 경향이 있어(Kebbell & Hatton, 1999),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 비해 손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Coyne, 2001; Lachs, Williams, O'Brien, Hurst, & Horwitz, 1997).

노인이 범죄의 주체 혹은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면담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노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서 수사현장에 오게 되는 경우, 노인의 인지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면담을 진행할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을 성인과 동일시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성인기에 비해 저하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성인과 같은 방식의 면담을 진행하여 성인과 동일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현재 인지적인 능력이 성인과 같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아동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인지능력과 그에 따른 증언능력, 아동의 회상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면담기법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증언능력과 노인에게 적합한 면담기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증언능력과 적합한 면담기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노인 인구층의 특

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60대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에서는 65세 이후부터의 삶을 노년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026년에는 20.8%가 되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9).

일반적으로 인간은 50세에 들어서면서부터 체력과 건강상태가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노년기에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며, 20세부터 시작되는 지적능력의 감퇴현상이 60대에 이르면서 가속화된다. 노인들은 성인기에 비해 일반지능, 기억, 언어, 문제해결 등 거의 모든 인지영역에서 능력의 감퇴가 일어나며, 특히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기억력 감퇴 현상이 나타난다(Poon, 1985). 또한 기억의 인출과정 역시 연령이 증가하면서 확실히 느려지며(Craik & Jennings, 1992; Madden, 1992), 노인의 경우, 재인은 느리기는 하지만 젊은 성인만큼 잘 해내나, 회상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성공률을 보인다(Craik & Jennings, 1992; Poon, 1985). 박종한(2005)이 노인 702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성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MMSE-K 성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고, 각 연령대별 변이계수 역시 연령이 증가하면서 커졌다. 따라서 연구자는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 기능이 서서히 감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노년기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은 젊은 성인보다 목격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들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보고하기도 힘들다(Brimacombe, Jung, Garrioch, & Allison, 2003; Coxon & Valentine, 1997; List, 1986; Yarmey & Kent, 1989).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은 성인에 비해 한 번 본 얼굴 사진을 정확히 회상하지 못하고(Bartlett & Leslie, 1986; Smith & Wignograd, 1987), 얼굴 뿐 아니라 사건 상황 기억력에서도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부정확하다(Yarmey & Kent, 1989)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인이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면담하며 용의자를 탐문하는 등의 모든 면담활동은 경찰이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전체적인 수사 활동의 85%에 달할 정도로(Rand Corporation, 1975) 범죄수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이다(Sanders, 1986). 때문에 경찰들은 최대한 완전성(completeness)과 정확성(accuracy)을 확보한 진술을 얻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 목격자들의 기억은 시간 지연이나 기타 요소들에 의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은 지적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인지능력이 일반 성인과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어린 아동 또는 인지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은 일반 성인보다 자유회상에 문제를 겪고, 사회적 요구 때문에 본인의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억의 출처를 탐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고한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증언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에 대해 행해졌으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인지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저하된 사람들이 성인에 비해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보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증언, 또는 진술능력과 인지적 능력의 저하에 관련된 연구는 현재 인지면담을 적용한 연구 외에는 발표된 바 없고(Wright & Holliday, 2007), 이에 관련된 연구 역시 매우 적은 편이며, 한국에서도 노인의 인지능력과 진술신빙성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지적장애인 등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일반 성인보다 전체적인 정보를 덜 제공하고(Dent, 1986; Perlman, Ericson, Esses, & Issacs, 1994),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진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Gudjonsson, Clare, & Pearse, 1993; Gudjonsson & Henry, 1999; 2003; Milne, Clare & Bull, 2002)을 참고로 했을 때,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저하된 노인들의 경우 성인보다 부정확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인지능력의 저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 진술을 반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경우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고의성이 없이 진술

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가해 유무나 정도를 축소하기 위한 동기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목격자의 경우에도 사건 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진술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기 위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완전하고 정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인지적인 능력의 저하로 인해 완전하고 정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목격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기억의 왜곡을 최소화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보다 많이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하여 경찰과 심리학자들은 주목해 왔다.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범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얻는 데 흔히 사용되는 면담기법은 표준면담(standard interview, SI)이다. 이에 대해 Fisher, Geiselman, 그리고 Raymond(1987)는 신문조사 양식에 기재된 질문순서대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면담자와의 의사소통 등 다른 방법을 통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없고, 단답형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나 목격자의 자유회상을 방해하며, 유도질문(leading question)을 통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eiselman 등(1984)은 경찰의 표준면담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로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보다 많이 인출시키기 위하여, 약호화 특수성원리(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 Tulving & Thomson, 1973)와 기억흔적의 중다요소 관점(the multicomponent view of the memory trace; Bower, 1967) 등 인지심리학의 기억회상 이론에 기초하여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CI)기법을 개발하였다. 인지면담 기법은 1) 목격자들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과 물리적 상태에 집중하게 하여 그에 대한 정신적 심상을 갖도록 하는 '정신적 맥락회복', 2) 피면담자에게 생각나는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부분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나 맥락에 상관없는 듯 보이는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모든 것 보고하기', 3)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을 회상하지 않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사건의 역순 등 다양한 순서로 사건을 보고하게

하는 ‘순서 바꾸기’, 4) 자신의 심리적 관점을 버리고 목격자, 피해자, 또는 용의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관점 바꾸기’의 4 가지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실무에 인지면담을 적용했을 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질문순서를 즉흥적으로 하는 등 인지면담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Fisher, Chin, & McCauley, 1990; Fisher, Geiselman, & Raymond, 1987),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Fisher와 Geiselman(1992)은 향상된 인지면담(enhanced cognitive interview, ECI)을 발표하였다. 향상된 인지면담은 기존의 네 가지 인지면담 기법에 더하여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을 통합시키고 이후의 질문순서를 규정해 놓은 면담기법이다. 즉, 본격적인 인지면담에 들어가기 이전에 1) 피면담자와의 라포형성, 2) 면담의 목적 설명 등의 과정을 추가하여 기존의 인지면담보다 목격자와의 사회심리적인 의사소통과 그로 인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향상된 인지면담의 질문순서는 1) 라포 형성하기, 2) 면담의 목적 설명하기, 3) 자유 회상하기, 4) 질문하기, 5) 심화기법을 사용한 기억인출, 6) 회상된 정보 요약하기, 7) 면담종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지면담(CI)과 향상된 인지면담(ECI)에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인지면담이 전체정보 회상 수를 증가시키는 기법이라는 점에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일치하고 있으나, 오류정보의 증가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인지면담이 오류정보의 증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는 많은 연구자들(Holliday, 2003; Kohnken, Thurer, & Zoberbier, 1994; Saywitz, Geiselman, & Bornstein, 1992)이 존재하는 반면, 인지면담이 전체 회상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오류정보의 양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Gwyer & Clifford, 1997; Kohnken, Milne, Memon, & Bull, 1999; McCauley & Fisher, 1995). 따라서 인지면담이 표준면담보다 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인지면담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는

대상을 성인에만 한정짓지 않고 점차적으로 특수한 집단, 특히 어린 아동, 노년층, 인지적으로 손상된 사람들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격진술이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Westcott, 1991; Williams, 1995).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지면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rown과 Geiselman(1990)은 학습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인지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I와 비교했을 때 작화 없이 정확한 정보의 보고율이 32% 더 높았다. 이후 Milne와 Bull(1996)은 경미한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7-10세)을 대상으로 향상된 인지면담을 실시하였고, SI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뛰어난 정확성을 보였다. Milne, Clare, 그리고 Bull(1999)은 향상된 인지면담을 경미한 학습장애가 있는 성인(19-62세)과 정상 성인(19-59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필름을 보여주고 1일 후 면담을 실시하였을 때, 정상 성인들이 학습장애가 있는 성인들에 비해 인물, 행동, 사물, 배경 정보 등에서 작화 없이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경미한 학습장애가 있는 성인들 중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이 표준면담 집단보다 정확한 정보를 35% 더 산출하였다.

그러나 인지면담 기법을 노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산출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Mello와 Fisher(1996)가 최초로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면담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1) 인지면담 기법(ECI), 2) ‘관점 바꾸기’를 제외한 수정된 인지면담(modified cognitive interview: MCI)기법, 3) 경찰의 표준면담(SD)을 시행한 통제집단 간의 정보의 회상율과 정확률을 비교하였다. 30명의 노인집단과 20명의 성인집단에 대해 같은 범죄 상황에 대한 같은 비디오클립을 보여주고 각각 수정된 인지면담과 표준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때, 노인집단은 표준면담, 인지면담, 그리고 수정된 인지면담을 받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연구결과, 인지면담 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했을 때, 인지면담 집단이 146% 더 많은 회상을 이끌어 냈고, 회상의 정확도도 통제집단과 유사하게 높았다. 그러나 수정된 인지면담이 인지면담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인지면담의 효과는 성인집단보다 노인집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Wright와 Holliday(2007)가 75세에서 96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1) 향상된 인지면담 기법, 2) 수정된 인지면담 기법, 그리고 3) 통제집단에게는 영국 경찰의 표준면담(SI)을 진행하였다. 이 때 노인들의 인지능력은 단축형 인지기능검사인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를 통해 측정하였고, 점수의 기저선을 26점으로 하여, 26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노인들은 경미한 인지능력의 장애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수정된 인지면담은 ‘관점바꾸기’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모두 인지면담과 같았다. 연구결과, 두 개의 노인집단이 모두 표준면담 집단보다 향상된 인지면담과 수정된 인지면담이 행동, 사람, 사물, 배경 등의 정보에서 높은 정확 정보를 보였다. MMSE 점수가 높은 노인집단이 MMSE 점수가 낮은 노인집단보다 전체 회상율이 높았으며, MMSE 점수가 높은 노인집단에서는 향상된 인지면담이 더 효과가 있었던 반면, MMSE 점수가 낮은 노인집단에서는 MCI, 즉 관점 바꾸기를 제외한 인지면담 기법이 효과적이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두 번째 연구(Wright & Holliday, 2007)에서는 나이가 많은 노인(old-old: 75-95세)과 그보다 연령이 낮은 노인(young-old: 60-74세), 그리고 나이가 어린 일반성인(young17-31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MMSE는 노인집단에게만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나이가 많은 노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모두 낮았고, ECI와 MCI로 면담을 받은 집단들이 SI로 면담을 받은 집단에 비해 부정확한 정보나 작화 없이 더 많은 인물, 행동, 사물, 배경 정보를 보고하였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일반화 하는 것은 이르지만, 선행연구 모두 노인에게 인지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정확정보를 회상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노인이 성인보다 전체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회상한다 해도, 사건에 대한 정보를 회상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인지면담 기법으로 면담을 받은 노인이 표준면담으로 면담을 받은 노인보다 목격된 사건에 대한 정확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한다면 사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법정상황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자료진술의 신뢰성 여부에 관련된 논쟁이 있을 경우, 그 신뢰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

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노인과 아동 등 인지능력이 일반적인 성인과 같지 않다고 판단되는 집단의 경우 인지면담의 ‘관점 바꾸기’ 기법은 어려운 작업으로, Boon과 Noon(1994)은 관점 바꾸기 같은 절차는 노인들에게 소문과 같이, 자신이 본 것이 아닌 들은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구성하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Herman과 Coyne(1980)은 이러한 절차는 노인들에게 일종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right와 Holliday(2007) 역시 인지능력이 정상인 노인에게는 향상된 인지면담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는 관점 바꾸기 기법을 제외한 수정된 인지면담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김시엽, 전우병, 김미영(2006)이 성인을 대상으로 ‘관점 바꾸기’를 제외한 단축형 인지면담을 실시한 집단, 향상된 인지면담을 실시한 집단, 그리고 표준면담을 실시한 통제집단 간의 정보 보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면담 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정확회상수가 더 많고 오류회상 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점 바꾸기’ 기법을 제외한 단축형 인지면담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진술의 정확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자들은 비록 오류정보가 증가하더라도 더 많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 수사현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술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을 채점할 때, 총정보에서 정확정보와 오류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정보와 오류정보, 그리고 총정보의 양에 대해서만 검증하였다.

비록 노인이 전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보고한다 하더라도, 인지면담을 받은 노인이 표준면담을 받은 노인보다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표준면담을 받은 성인 수준의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실제 수사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진술을 얻는 진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 등의 특정한 인지장애 없이 노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인지능력이 감퇴된, 비교적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표준면담과 단축형

인지면담을 시행했을 경우 사건의 정확정보와 오류정보, 그리고 총정보의 보고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다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노인과 일반적인 성인이 동일한 자극을 보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지면담에서 노인이 성인보다 적은 정보를 보고했다고 해서 노인이 성인보다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인 수준에서 탐색해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단축형 인지면담을 받은 노인이 표준면담을 받은 노인보다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가설 2: 노인이 성인보다 더 적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면담기법: 인지면담/표준면담) x 2(연령 집단: 성인/노인) 집단 간 설계로, 먼저 성인집단은 경기도 소재 K대학에 재학 중이며 심리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남녀 수강생 28명과, 서울 소재 S대학에 재학 중이며 실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실험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성인집단의 총 수는 41명이며, 남학생은 21명으로 평균연령은 23.33세(SD=2.72)였고, 여학생은 20명으로 평균연령은 21.85세(SD=8.09)였다.

다음으로, 노인집단은 서울특별시 Y구 소재 노인정에서 실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65세 이상 노인 7명과 기타 실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65세 이상 노인 23명을 대상으로 실험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노인집단의 총 수는 30명이며, 남성은 13명으로 평균연령은 68.84세(SD=4.05)였고, 여성은 17명으로 평균연령은 77.17(SD=8.34)세였다. 노인집단의 학력은 무학 10명, 초졸 5명, 중졸 4명, 고졸 8명, 대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교육연수는 7년(SD=5.73)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결측치 제외)들의 무선할당 결과는 표 1과 같다.

절차

실험참여자들은 실험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실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다음으로 실험참여자들은 EBS 다큐프라임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1부: 아이들은 왜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가?’ 에서 아동을 유괴하는 장면을 연출한 부분을 잘라낸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의 총 길이는 1분 28초였고, 앞의 28초는 검은 화면으로 처리가 되다가 29초부터 영상이 시작되었다. 실험참여자들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성인집단의 경우 실험의 일환으로 처음에 소개받은 책의 일부를 읽었다. 책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제 3권)’로, 36쪽에서 54쪽에 해당하는 짧은 이야기 세 편을 읽게 했고, 그에 관한 문제를 풀게 했다. 이는 영상에 대한 간섭효과를 위한 절차로, 이야기들은 실험참여자들이 시청한 영상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 역시 실험의 과정 중 일부라고 소개하였고, 문제에 대한 채점이 행해질 것이라는 지시를 주어, 실험참여자들이 책을 읽는 데 집중하도록 하였다. 책을 읽는 시간은 실험참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문제를

표 1. 집단별 무선할당 결과(n)

	성인남성	성인여성	노인남성	노인여성	전체
인지면담	11	9	8	7	35
표준면담	10	11	5	10	36
전체	21	20	13	17	71

푸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참여자들이 책에서 읽도록 요구된 부분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고 난 뒤, K-MMSE를 시행하였다.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능력의 정상 여부를 알아보는 도구로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점은 30점이며, 검사를 완료하는 데 5분에서 10분가량이 소요된다. MMSE는 시행과 채점이 비교적 쉽고 인지기능 장애의 유무와 그 정도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 실패(memory failure)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즉, MMSE 검사는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단지 인지장애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인지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MMSE 검사에서는 일정한 기준점수를 바탕으로 그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MMSE를 변안하여 한국노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K-MMSE이며, 1997년에 표준화되었다. K-MMSE는 국내에서 조기 치매검사, 또는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K-MMSE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NSB 버전의 K-MMSE를 사용하고, SNSB 매뉴얼에 따라 채점하였다. 외국판과 달리 K-MMSE검사에서는 나이와 학력을 기준으로 인지능력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규준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없는 노인 실험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변별해내기 위해 K-MMSE 검사를 사용하였다. 즉, K-MMSE 점수가 현저히 낮은 노인 실험참여자의 경우 추후의 면담을 시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노인 실험참여자들은 나이와 학력을 기준으로 구분된 K-MMSE 규준에 따랐을 때 규준 점수 이상을 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들인 성인에게 K-MMSE를 실시하여 점수를 채점하고 치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 절차를 추가시킨 이유는 되도록 실험절차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영상을 시청한 것과 면담을 진행

하는 것 사이에 간접효과를 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였다. Wright와 Holliday(2007)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과 무관한 이야기를 30분간 나눈 뒤 면담을 시행하고, 면담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MMSE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시간을 지연하여 영상에 대한 간접효과를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K-MMSE를 시행하는 절차를 면담을 시행하기 전에 삽입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내외였다. 따라서 영상을 보고 면담을 시행하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성인집단의 경우 K-MMSE 점수는 평균 29.85(SD=0.42)였다.

노인집단의 경우 예비실험 결과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고, 동일한 분량을 읽는데 성인의 약 2배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노인으로 인해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노인집단의 경우는 Wright와 Holliday(2007)의 실험절차를 참고로 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 영상과 무관한 주제에 대해 약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K-MMSE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에는 성인보다 5~7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노인집단의 K-MMSE 점수는 평균 26.2(SD=2.57)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참여자들을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표준면담 혹은 단축형 인지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은 실험자 1인이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표준면담과 단축형 인지면담의 형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자는 면담 전에 각 면담기법에 대해 충분히 훈련을 받고 예비실험을 하였다. 또한 K-MMSE 사용법에 대해서는 노인 전문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았다.

채점

먼저, K-MMSE 검사는 강연욱, 나덕렬(2003)의 SNSB버전 K-MMSE 매뉴얼에 따라 채점하였다. MMSE 검사를 바탕으로 인지능력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Wright와 Holliday(2007)는 26점을 기준으로 하여, 26점 이하 그룹을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 간주하고, 27-30점 그룹을 인지능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노인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국판 검사인 K-MMSE에는 나이와 학력을 기준으로 인지능

력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방법대로 일정한 점수를 지정하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 나이와 학력을 바탕으로 구분된 K-MMSE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였다. K-MMSE 기준은 동일한 나이라 하더라도 학력을 감안하여 고학력일수록 점수가 더 높아야 인지능력이 정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저학력일수록 더 낮은 점수를 받았어도 인지능력을 정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동일한 학력일 경우, 연령대가 더 높을수록 더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인지능력이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면담내용의 정확정보, 오류정보, 총정보의 계산 시, 먼저 모든 면담내용을 녹취하였다. 녹취하여 수집된 진술의 채점은 실험자 1인과, 실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모르는 일반 대학 학부생 1인이 각각 실시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도는 .891이었다.

진술에서 나타나는 ‘정확정보’는 영상에 있던 92개의 보고 가능한 사실 정보를 각각 사람(33개), 사물(15개), 행동과 대화(28개), 배경과 상황(16개)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정확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정보’로 계산하여 1점을 주고, 영상에 있었지만 실험참여자가 보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0점을 주었다. 또한 진술에서 나타나는 ‘오류정보’란 1) 전혀 본 적이 없는 정보를 보았다고 작화하여 보고하는 것과, 2) 본 적이 있으나 세부사항을 보고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며, 측정 시 두 가지 오류의 유형을 구분하여 채점하였고, 잘못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류정보’로 계산하여 1점을 주었다. 실험참여자들이 보고한 세부사항들은 또한 초기의 ‘자유진술’과 면담자의 지시 혹은 질문에 대답한 ‘질문상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실험참여자가 보고한 정확정보의 수(총 채점판에서 ‘있다’에 체크된 정보의 수)와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 오류정보의 수를 더하는 식으로, 정확정보와 오류정보를 합산하여 피면담자가 보고한 총정보를 산출하였다.

결 과

본 분석에서는 정확정보, 오류정보, 총정보 각각에 대한 면담기법과 연령집단에 따른 이원변량분석과, 노인집단 간 면담기법에 따른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네 가지 범주(인물, 사물, 행동대화, 배경상황)로 정확정보와 오류정보를 구분하여 각 8개 정보에 대한 면담기법과 연령집단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먼저, 면담기법과 연령집단에 따른 정확정보, 오류정보, 총정보의 기술통계치와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연령집단과 면담기법의 주효과, 그리고 연령집단과 면담기법의 상호작용효과가 일부(오류정보에 대한 면담기법, 연령*면담기법)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먼저 연령에 따라 정확정보의 양에서 성인이 노인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정확정보를 보고하였으며($F(1, 67) = 158.446, p < .001$), 더 많은 오류정보($F(1, 67) = 12.221, p < .01$)와 총정보($F(1, 67) = 141.774, p < .001$)를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면담기법에 따라 인지면담집단이 표준면담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정확정보를 보고하였고($F(1, 67) = 66.245, p < .001$), 총정보의 양에서도 인지면담집단이 표준면담집단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하였다($F(1, 67) = 51.017, p < .001$). 마지막으로, 연령과 면담기법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정확정보($F(1, 67) = 12.063, p < .01$)와 총정보($F(1, 67) = 8.505, p < .01$)의 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집단 간 면담기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노인집단 중 인지면담을 시행한 집단이 표준면담을 시행한 집단에 비해 총정확정보($t(28) = -4.224, p < .001$)와 총정보($t(28) = -3.817, p < .001$)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고하였다. 총오류정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면담내용을 채점할 때 사람관련 정보, 사물관련 정보, 행동과 대화관련 정보, 배경과 상황 관련 정보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채점하였는데, 연령과 면담기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들의 보고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범주별 정확정보와 오류정보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면담방식과 연령에 따른 4가지 범주별 정확정보와 오류정보 양의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정보 보고를 살펴보면, 인물정확정보($F(1, 67) = 43.235, p < .001$), 사물정확정보($F(1, 67) = 36.032, p < .001$), 행동대화정확정보($F(1, 67) = 83.504, p < .001$), 그리고 배경정확정보($F(1, 67) = 119.448, p < .001$)에 있어 성인이 노인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표 2. 면담기법과 연령집단에 따른 정확정보, 오류정보, 총정보의 평균(표준편차)

		연령	면담	<i>n</i>	<i>M (SD)</i>
정확정보	성인		표준	21	17.24 (4.61)
			인지	20	33.00 (8.08)
			합계	41	24.93(10.26)
	노인		표준	15	4.87 (4.10)
			인지	15	11.20 (4.11)
			합계	30	8.03 (5.16)
	합계		표준	36	12.08 (7.56)
			인지	35	23.66(12.76)
			합계	71	17.79(11.90)
	오류정보	성인		표준	21
			인지	20	4.55 (2.32)
			합계	41	4.41 (2.48)
노인			표준	15	2.33 (2.16)
			인지	15	2.73 (1.38)
			합계	30	2.53 (1.79)
합계			표준	36	3.47 (2.62)
			인지	35	3.77 (2.15)
			합계	71	3.62 (2.39)
총정보		성인		표준	21
			인지	20	37.55 (9.67)
			합계	41	29.34(11.09)
	노인		표준	15	7.20 (5.24)
			인지	15	13.93 (4.38)
			합계	30	10.57 (5.85)
	합계		표준	36	15.56 (8.77)
			인지	35	27.43(14.17)
			합계	71	21.41(13.10)

표 3. 면담기법과 연령집단에 따른 정확정보, 오류정보, 총정보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평균제곱	<i>F</i>	<i>p</i>
연령집단 (노인/성인)	정확정보	5055.962	158.446	.000
	오류정보	61.509	12.221	.001
	총정보	6232.799	141.774	.000
면담기법 (인지/표준)	정확정보	2113.854	66.245	.000
	오류정보	1.911	.379	.540
	총정보	2242.869	51.017	.000
연령*면담기법	정확정보	384.919	12.063	.001
	오류정보	.080	.016	.900
	총정보	373.918	8.505	.005

표 4. 면담방식과 연령에 따른 4가지 카테고리별 정확정보, 오류정보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평균제곱	F	p
연령집단 (노인/성인)	인물정확	314.766	43.235	.000
	사물정확	73.294	36.032	.000
	행동대화정확	689.494	83.504	.000
	배경상황정확	343.889	119.448	.000
	인물오류	18.922	10.919	.002
	사물오류	9.527	13.184	.001
	행동대화오류	2.593	2.678	.106
	배경상황오류	4.066	6.920	.010
면담기법 (인지/표준)	인물정확	154.518	21.224	.000
	사물정확	15.397	7.569	.008
	행동대화정확	403.012	48.809	.000
	배경상황정확	91.147	31.659	.000
	인물오류	.613	.354	.554
	사물오류	.001	.002	.968
	행동대화오류	.000	.000	.988
	배경상황오류	.302	.515	.476
연령*면담기법	인물정확	24.399	3.351	.072
	사물정확	6.435	3.163	.080
	행동대화정확	23.191	2.809	.098
	배경상황정확	53.693	18.650	.000
	인물오류	.052	.030	.863
	사물오류	.636	.880	.351
	행동대화오류	.085	.088	.767
	배경상황오류	.728	.080	.698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정보에 있어서도 인물오류정보($F(1, 67) = 10.919, p < .01$), 사물오류정보($F(1, 67) = 13.184, p < .01$), 그리고 배경오류정보($F(1, 67) = 6.920, p < .05$)에서 성인이 노인보다 유의하게 많은 오류정보를 보고하였다. 오직 행동대화오류정보($F(1, 67) = 2.678, p = .106$)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면담기법에 따른 정보 보고를 살펴보면, 인물정확정보($F(1, 67) = 154.518, p < .001$), 사물정확정보($F(1, 67) = 7.569, p < .01$), 행동대화정확정보($F(1, 67) = 48.809, p < .001$), 그리고 배경정확정보($F(1, 67) = 31.659, p < .001$)에서 모두 인지면담집단이 표준면담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류정보들 모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면담기법 간의

상호작용과 정보보고를 살펴보면, 배경정확정보($F(1, 67) = 18.650, p < .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고 나머지 세 개의 정확정보들과 네 개의 오류정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면담을 시행했을 때, 표준면담을 시행한 노인보다 더 많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고할 것이라는 노인이 성인보다 더 적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하고 더 많은 오류정보를 보고할 것인지도 부차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과 노인으로 구성된 실험참여자들을 무선적으로 단축

형 인지면담 또는 표준면담 집단에 배정하고, 각 집단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면담기법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지면담을 실시한 노인집단이 표준면담을 실시한 노인집단에 비해 더 많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하였고, 오류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집단 역시 인지면담을 실시한 집단이 더 많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하고 오류정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면담의 종류에 상관없이 성인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보고하였고, 오류정보 역시 성인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기법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정확정보와 총정보에서 나타났다.

즉, '단축형 인지면담을 실시한 노인이 표준면담을 실시한 노인보다 정확정보와 총정보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지지되어, 노인들에게도 표준면담보다는 인지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오류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많은 정확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결과, 표준면담을 진행한 집단에서는 '모든 것 보고하기'와 관련된 지시에 대해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 등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지면담을 진행한 집단에서 '모든 것 보고하기' 지시를 했을 때는 영상에 등장한 사람을 언급할 때 입고 있는 옷이나 사람이 서 있던 위치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였고, 영상의 내용에 대해 얘기할 때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변의 등장인물이나 주변에 있던 사물들에 대한 언급도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 연구 중, Mello와 Fisher(1996)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면담을 시행한 집단과 경찰의 표준면담을 시행한 통제집단을 비교했을 때 인지면담을 시행한 노인집단이 146% 더 많은 회상을 하였고, 회상의 정확도 역시 .89로 통제집단과 유사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Wright와 Holliday(2007) 역시 표준면담을 진행한 노인집단보다 향상된 인지면담을 진행한 노인집단과 수정된 인지면담을 진행한 집단이 더 많은 정확정보들을 보고하였으며, MMSE 점수가 높은 노인집단이 MMSE 점수가 낮은 노인집단보다 전체 회상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나이가 비교적 더 많은 노인집단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노인집단과 일반 성인보다 정보보고의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인지면담을 시행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오류정보의 증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산출해낸다는 결과 역시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면담을 진행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로써 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노인에게 인지면담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 노인의 정보보고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역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면담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보보고에 연령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에게 인지면담을 실시했을 때 표준면담보다 오류정보의 증가 없이 더 많은 정확정보를 보고하지만, 인지면담을 실시한 노인 역시 표준면담을 실시한 성인보다 현저히 적은 정보를 보고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성인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노인면담 역시 성인면담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었다. 즉, 노인을 성인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간주하여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면담을 진행할 때 표준면담보다는 인지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정보보고의 증가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체언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성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의 방식에 대해, 권영민(2004)은 노인이나 특히 인지능력이 성인과 같지 않은 피해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인지면담을 실시할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모델링 절차를 활용한 인지면담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분석결과 면담기법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이 정확정보와 총정보에서 나타난 점에 대해서 해석에 주의할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확정보와 총정보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연령대의 집단에서 인지면담 기법으로 면담을 진행한 집단이 표준면담을 진행한 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정확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효과의 정도가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된다. 이는 같은 연령대에서는 인지면담이 표준면담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보고해낼 수 있지만, 그 효과의 정도가 연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추후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인집단은 노인집단에 비해 더 많은 오류정보 역시 보고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술의 정확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오류정보를 증가시키지 않는 면담기법이 좋은 면담기법이라는 관점을 가진 수사관이라면 표준면담이 더 좋은 면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오류정보가 많을지라도 하나라도 더 많은 정확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면담기법이 좋은 면담기법이라고 판단하는 수사관은 인지면담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정보율과 오류정보율, 즉 총정보에서 정확정보 또는 오류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고, 대신 정확정보, 오류정보, 총정보의 양에 대해서만 검증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록 오류정보의 양도 증가시키지만 정확한 정보를 그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수사 실무에서는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인지면담을 실시할 때는 비록 정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정보들 중에는 오류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면담 기법을 신중히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면담기법 간에는 정보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 간에는 오류정보의 보고에 있어 정보의 종류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인이 성인보다 더 적은 오류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더 적은 인물·사물·배경 오류정보를 보고하였는데, 행동대화오류에 있어서는 성인과의 오류정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인과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오류정보를 보고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노인이 인물·사물·배경과 관련된 정보보다 행동대화와 관련된 정보에서 더 많은 오류정보를 보고한 것이다. 이는 노인 실험참여자들에게 성인과 동일한 영상을 제공하였을 때, 시각으로 기억해야하는 인물·사물·배경보다 청각으로 기억해야하는 대화관련 정보를 더 잘 기억하거나 보고해내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이 성인에 비해 저하된 청각능력이나 청각기억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험 전에도 성인에 비해 노인이 청각능력이 좋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여 영상에 나오는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을 받고 실험 시에도 성인 실험참여자들 보다 +10~20의 음향수준으로 영상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거나, 영상에 나오는 인물(아이와 어른)에 집중하느라 집중해서 잘 듣지 않았다는 보고를 면담 시 많이 받았다. 이 점에 대해, 노인성 난청 등의 이유로 인한 청각능력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시각과 관련된 기억에 비해 청각기억이 더 빨리 쇠퇴하기 때문인지 밝혀내는 것이 추후 연구로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령과 면담기법의 상호작용에서 배경정확정보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나이가 비교적 어린 성인에게 인지면담 기법을 사용해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을 때,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한 정보들까지 많이 보고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표준면담 방식으로 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거나, 노인 실험참여자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을 경우, 사건의 등장인물과 등장한 사물,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과 그 안에서 행해진 대화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건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지시를 나이가 어린 성인과 인지면담 집단과 차이가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정도의 차이로 정보를 보고했을 수 있다. 자에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노인보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성인이 인지면담을 통해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자세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배경과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실험참여자들이 동일한 영상을 시청한 뒤 그것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험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조작하여 실험참여자가 특정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게 한 뒤 면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청한 영상을 망각하게 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처치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나타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노인과 성인에게 각각 다른

간섭처치를 했다는 점 역시 한계로 남는다. 즉 성인집단에게는 책을 읽게 하고, 그에 관한 문제를 풀게 하였지만 노인집단은 책을 읽는 데 거부감을 나타내어 실험자에게 참여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대체해야 했다. 따라서, 실험처치가 동일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충분치 않아 영상에 대한 간섭효과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진행할 때는 최대한 동일한 간섭처치를, 몇 시간 혹은 며칠 정도의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어 영상이나 실제로 목격한 실험상황에 대한 간섭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가 보고한 진술을 녹취하여 인물, 사물, 대화 및 행동, 배경 등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정보의 진위여부에 따라 정확정보, 오류정보로 채점하였다. 그러나 실험참여자가 보고한 진술을 구분하는 데 이러한 양적인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녹취한 진술을 채점할 때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정보와 사건의 핵심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주변정보로 구분하는 등 진술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질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수사면담 장면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단축형 인지면담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야 했지만, 충분치 않은 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 역시 한계점 중 하나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충분히 실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있는 실험참여자를 구하는 것부터 면담에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 성인들에게 질문하듯이 질문 규정에 맞는 딱딱한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면담과정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 성인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말을 하게 되면 노인들의 경우 일반 성인보다 면담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목소리를 크게 하고, 경청의 태도를 보이며, 실험참여자가 면담자의 지시사항과 면담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에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더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인지능력별, 연령별, 학력별, 성별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성인과 같지 않은 인구에 대한 면담 프로토콜은 주로 아동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있으나, 노인인구에게 알맞은 면담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연옥, 나덕렬(2008). 서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 휴브알엔씨 (<http://www.humanbrainkorea.com/>).
- 권영민(2004). 아동의 사건 회상에서 '모델링'인지 면접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시엽, 진우병, 김미영 (2006). 효율적인 수사면담을 위한 단축형 인지면담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21-38.
- 대검찰청 (2003). 2002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07). 2006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09). 2008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박종한(2005).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인지기능의 감퇴양상. 노인병, 9(3), 210-214.
- 장준오(2009).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215-255.
- 통계청(2009). 2009년 통계 연보. 서울: 통계청.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0). 2010년 세계보건통계.
- Bartlett, J. C., & Leslie, J. E. (1986). Aging and memory for faces versus single views of faces. *Memory & Cognition*, 14, 371-381.
- Boon, J., & Noon, E. (1994). Changing perspectives in cognitive interviewing. *Psychology, Crime and Law*, 1, 59-69.
- Bower, G.(1967). A multicomponent theory of the memory trac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1, 229-325.
- Brimacombe, C. A., Jung, S., Garrioch, L., & Allison, M. (2003). Perceptions of older adult eyewitnesses: Will

- you believe me when I'm 64? *Law and Human Behaviour*, 27, 507-522.
- Brown, C. L., & Geiselman, R. E. (1990). Eyewitness testimony of mentally retarded: Effect of the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6, 14-22.
- Coxon, P., & Valentine, T. (1997). The effects of the age of eyewitnesses on the accuracy and suggestibility of their testimon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415-430.
- Coyne, A. C.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dementia and elder abuse. *Geriatric Times*, 11(4). www.geriatrictimes.com/g010715.html
- Craik, F. I. M., & Jennings, J. M. (1992). Human memory. In F. I. M. Craik & T. A. Salthouse (Eds.), *Handbook of aging and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 Dent, H. (1986).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echniques of questioning mentally handicapped child witness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13-17.
- Fisher, R. P., Chin, D. M. & MacCauley, M. R. (1990). Enhancing eyewitness recollection with the cognitive interview. *National Police Research Unit Review*, 6, 3-11.
- Fisher, R. P. & Geiselman, R. E. (1992). *Memory-enhancing techniques for investigative interviewing: The cognitive interview*.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Fisher, R. P., Geiselman, R. E., Raymond, D. S. (1987). Critical analysis of police interviewing techniqu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5, 177-185.
- Geiselman, R. E., Fisher, R., Firstenberg, I., Hutton, L., Sullivan, S., Avetissina, I. V., & Prosk, A. L. (1984). Enhancement of eyewitness memory: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2, 74-80.
- Gudjonsson, G. H. & Henry L. (2003). Child and adult witness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importance of suggestibility.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8, 241-252.
- Gudjonsson, G. H., Clare I., R. S. & Pearse, J. (1993). *Persons at risk during interviews in police custody: The identification of vulnerabilities*. Royal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London: H.M.S.O.
- Gwyer, P., & Clifford, B. R. (1997). The effects of the cognitive interview on recall, identification and the confidence/accuracy relationship.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121-145.
- Herman, J. F., & Coyne, A. C. (1980). Mental manip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in young and elderly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77-378.
- Holliday, R. E. (2003). The effect of prior cognitive interview on children's acceptance of misinformation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 443-457.
- Kebbell, M. R., & Hatton, C. (1999).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as witnesses in court: A review. *Mental Retardation*, 37, 179-187.
- Kohnken, G., Milne, R., Memon, A., & Bull, R. (1999). The cognitive interview: A meta-analysis. *Psychology, Crime and Law*, 5, 3-28.
- Kohnken, G., Thurer, C., & Zoberbier, D. (1994). The cognitive interview: Are the interviewer's memories enhanced too?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8, 13-24.
- Lachs, M. S., Williams, C., O'Brien, S., Hurst, L., & Horwitz, R. (1997). Risk factors for reported elder abuse and neglect: A nine-year observational cohort study. *The Gerontologist*, 37, 469-474.
- List, J. A. (1986). Age and schematic differences in the relia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0-57.
- Madden, D. J. (1992). Four to ten milliseconds per year: Age-related slowing of visual word ident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7, 59-68.
- McCauley, M. R., & Fisher, R. P. (1995). Facilitating children's recall with revised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510-516.
- Mello, E. M., & Fisher, R. P. (1996). Enhancing older adult eyewitness memory with the cognitive interview.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0, 403-417.

- Milne, R., & Bull, R. (1996). Interviewing children with mild learning disability with the cognitive interview. In N. K. Clark & G. M. Stephenson (Eds.), *Investigative and forensic decision-making* [Issues in Criminological Psychology, No. 26]. Leicester, UK: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Milne, R., Clare, I. C. H., & Bull, R. (1999). Using the cognitive interview with adults with mild learning disabilities. *Psychology, Crime and Law*, 5, 81-99.
- Milne, R., Clare, I. C. H. & Bull, R. (2002)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among witnesse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use of an adaptation of the GS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5, 8-17.
- Perlman N. B., Ericson K. I., Esses V. M. & Issacs B. J. (1994) The developmentally handicapped witness: Competency as a function of question format. *Law and Human Behavior*, 18(2), 171-187.
- Poon, L. W. (1985). Differences in human memory with aging: Nature, causes, and clinical implications.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2nd ed.). NY: Van Nostrand Reinhold.
- Rand Corporation. (1997).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Vols 1-3*. Rand Corporation Technical Report R 1777_ DOJ. Santa Monica.
- Sanders, G. S. (1986). *The usefulness of eyewitness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investigators*. Unpublished manuscrip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Saywitz, K. J., Geiselman, R. E., & Bornstein, G. K. (1992). Effects of cognitive interviewing and practice on children's recal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744-756.
- Smith, V. L., & Ellsworth, P. C. (1987). The social psychology of eyewitness accuracy: Misleading questions and communicator experti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294-300.
- Tulving, E., & Thomson, D. M. (1973). Encoding specificity and retrieval processes in episod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0, 353-370.
- Westcott, H. L. (1991). The abuse of disabled 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17, 243-258.
- Williams, C. (1985). *Invisible victims: Crime against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London: Jessica Kingsley.
- Wright, A, Holliday, R. (2007). Interviewing cognitively impaired older adults: How useful is a cognitive interview? *Psychology Press, Memory*, 15(1), 17-33.
- Wright, A, Holliday, R. (2007). Enhancing the recall of young, young - old and old - old adults with cognitive interview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 19-43.
- Yarmey, A. D., & Kent, J. (1989). Eyewitness identification by elderly and young adults. *Law and Human Behaviour*, 4, 359-371.

The Effects of the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 on Older Eyewitness Recall

Si Up Kim Ok Yeong Moon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effects of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SCI) on the recall of normal intelligent older(over 65 years old) eyewitness. Independent variables were age (younger adults/older adults.) and interviewing techniques(SCI: SI). Dependent variables were amount of informations(correct, incorrect, total). Participants watched same video clip, then they were tested by Korea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MMSE). And they were divided by age(older/younger), each 2 groups were divided by different techniques(older*SCI, older*SI, younger*SCI, younger*SI). Then each 4 groups were interviewed. As a result, older*SCI group recalled significantly more correct, total informations than older*SI group, but the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in incorrect information. And 2 older adults groups recalled significantly less correct, incorrect, and total information than 2 younger adults groups. Implications of investigative practice, limitations of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older adults,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SCI), standard interview(SI)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8월 25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11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1월 28일

부록 I-1

면담에서 사용된 단축형 인지면담 기법

1) 라포 형성

2) 인지면담 절차 설명

“아까 전에 보신 영상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사건과 관련된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만 얘기하고,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만약 이게 실제상황이라면, 어떤 사소한 부분이 단서가 돼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지 말고 저한테 전부 다 얘기해주시면 돼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영상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해주시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돼요.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빼먹은게 있다 싶으시면 얘기 중간에 얘기해주셔도 괜찮구요, 기억 안 나시는 부분은 그냥 기억 안 나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건, 보신 걸 모두 다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거구요. 대신 기억 안 나는데 지어서 말씀하시지는 마시구요. 그냥 있던 것,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주세요.” (지시사항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함.)

2) 자유 회상

a. 맥락복원

“아까 전에 제가 영상을 틀어주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영상을 보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만 화면만 재생되다가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떠오르는 내용들을 전부 말씀해주세요.”

b. 모든 것 보고하기

“다 되셨으면 저한테 모든 걸 다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할 게 있는데, 보시거나 들은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빼놓지 마시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생각난 게 쓸데없다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얘기 안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돼요.”

c. 순서 바꾸기: 여러 차례 실시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궁금한 부분 몇 부분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어떤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아까 전에 하셨던 것처럼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신 뒤에 그 장면에서 보았거나 들었던 것 모두를 말씀해주세요.”

d. 전부 보고 했는지 확인하고 들은 내용 정리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해주신 걸 제가 한 번 쪽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릴테니, 듣다가 혹시 더 기억나시는 것이 있거나 중간에 빼먹은 것 같은 부분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주셔도 돼요.”

4) 종료

부록 I-2

면담에서 사용된 표준면담 기법

1) 라포 형성

2) 자유 회상

a. 모든 것 보고하기

“아까 전에 보신 영상의 내용이랑 보신 것, 들으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전부 말씀해주세요.”

3) 피면담자가 보고한 정보들에 관한 질문만을 대상으로 개방형/폐쇄형 질문

a. 개방형 질문

“그러면 영상에 나온 1) 남자, 2) 아이, 3) 두 사람의 행동, 4) 주변 배경, 5)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b. 각 요소들에 대한 폐쇄형 질문

c. 전부 보고 했는지 확인하고 들은 내용 정리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해주신 걸 제가 한 번 쪽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릴테니, 듣다가 혹시 더 기억나시는 것이 있거나 중간에 빼먹은 것 같은 부분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주셔도 돼요.”

4) 종료
